



제1호 / '16.4.7(목)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사용자들 상견례 무단 불참!!



사측, 상견례부터 이유없이 불참

4월 7일 열린 지부교섭 상견례가 시작부터 파행이다. 대전충북지역 사용자협의회는 아무런 이유없이 교섭을 미루자고 하더니 결국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단 불참은 교섭해태로 엄연히 부당노동행위이다.

금속노조는 6일(수)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중앙교섭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막무가내로 교섭 불참해놓고 중앙교섭도 열리지 않았으니 지부교섭도 미루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 올해 임단투가 박근혜 정권의 개입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

정부의 임단협 개입 거부한다

사용자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막무가내인 것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의지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 한해 동안 끝없이 노동개악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노동부를 앞세워 정부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반해고, 임금체계 개악(임금피

크제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부 지침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헤집어놓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3일에는 노동부가 임단협 지도지침까지 발표했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동등한 교섭을 해야 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미 불공평한 싸움이 돼버렸다.

정부가 이러니 사용자들은 신났다. 임단협 시작 전부터 한온시스템과 코스파 사용자는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올해 교섭이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뻔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리의 투쟁이 올해는 특히 더 절실하다.

노동개악 저지 없이 임단협도 없다

총선이 끝나면 새누리당은 또다시 노동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정부는 행정지침을 앞세워 현장을 침탈하고 있다. 법마저 통과되면 거침없이 노동개악이 밀려올 것이다. 올해 임단협은 대정부 투쟁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려는 재벌과 정권에 맞서서 단단히 마음먹고 올해 임단투를 시작하자.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사용자 교섭준비가 안 됐다

노 : 올해 교섭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파행이라 안타깝다. 다음에는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사 : 지부에서 4/7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예전 같으면 4월말에 교섭을 시작하다보니 교섭위원들이 그 때에 맞춰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정이 당겨지면서 준비가 미진했던 것이 있다. 저희 회사도 교섭위원 확정을 못했다. 사정들이 있어서 21일 교섭을 열었으면 한다. 그런 내용으로 조합 측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 : 21일은 전체 참석하도록 해달라.

사 : 그 때는 이상없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노 : 그 때는 한온시스템도 발령이 나나?

사 : 다음 주에는 확정될 것이다.

노 : 한온시스템은 누가 나오나?

사 : 이인영 사장 비롯해서 교섭위원 결정되면 참석하겠다.

노 : 교섭 진행되는 해당 사업장 대표이사는 꼭 참석하도록 해야한다. 21일은 이인영 대표이사가 꼭 참석하도록 해달라.

사 : 그렇게 전하겠다.

노 : 오늘 상견례가 정상적 교섭이 안됐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사가 상호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다. 21일 15시로 차기 교섭 진행하도록 하자.